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 포 시 배포 2026. 11. 11.(수) 14:30

기획처장관, 美 중간선거 이후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

-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성장 기반과 재정 여력은 모두 양호
- 반도체 편중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 역량 집중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월 11일(수)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**공공기관·민간·학계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**를 갖고, 미국 중간선거 이후 **국내외 경제 동향**을 점검하고 **재정 대응방향**을 논의하였다.

< 美 중간선거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: '26.11.11.(수), 12시 / 국회 의원회관 2층
- 참석자: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장관, 미래전략기획실장, 재정혁신정책관 등
  전문가 **권남훈** 산업연구원 원장, **주원**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
  박은균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, **박종훈** SC 수석이코노미스트
 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

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정책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,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**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**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. 특히 금년 3% 중반 성장 전망,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 등 **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**하나, 최근 증시 조정은 **반도체에 편중**된 **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**(Signal)로 **엄중히 인식할 필요**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**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**과 **재정투자 대응방향**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당부하였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**미국의 인공지능(AI)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**가 **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**을 점검하였다. 박 장관은 **반도체**가 우리 **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**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, **세수가 변동하더라도 「미래대응기금」**이 **이를 완충**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.

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시장 조정을 **반도체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**로 삼아 **7대 SEED*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**로 **산업 다변화**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**AI 투자 축소는 쉽지 않고**, 장기공급계약(LTA) 확대 등으로 **우리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**하다고 평가하면서 **산업 다변화 필요성**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.

* 소형모듈원자로(SMR), 핵융합, 재생에너지, 양자, 우주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 공급망 생태계

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번 **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·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**된 점을 언급하며, "**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**"고 강조하였다. 특히 **고물가·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에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**을 하겠다며, 초과세수를 활용한 **취약차주 지원 보강**과 **일자리·주거·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**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참석자들은 **수출 호조가 내수·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장 과실을 확산**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.

박홍근 장관은 "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**'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**와 **「미래대응기금」 운용**, **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**해 나가겠다"며, "대외 여건 변화가 **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** 앞으로도 **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**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재정혁신정책관 재정기획분석과	책임자	과 장	정민형 (044-214-18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홍석 (aforing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